까닭모를 少女毒殺未遂

골목서 毒物사탕 먹여

犯人은 13歲 가량의 少女 …… 입부르트고 한때 失神까지

어떤상품이어보이는 소녀가 길에서놀던어린이(5세)를 골목으로꾀어 독물(毒物)을 사탕이라고 속이고먹여중상을입힌후 달아난—일종의엽기적인살인미수사건이 서울시내에서발생했다. 해낸마액과 범행에서라도 또한 밝혀지지않고있다. 어린남의집딸을죽이려 했을까…이에대해 아직전혀 밝혀지지않고있다.

25일상오10시경 시내서대문구홍파동95의2 朴鍾賢(33)씨의네째딸 英順(5)양이 엄마가 벌여놓은 구멍가게 앞에서놀고있을때 8세가량의소녀가 나타나 英양을 골목에유인—눈깔사탕같은것을 사방이라고 먹여놓고 달아났다. 이것을 받아먹은 英양은 순식간에 입언저리가해어지고도하기시작—이어 쓰러졌다. 朴씨는 근처에있는「영천의원」에 달음질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했는데 의사진단에의해 英양이먹은「사탕」이 유독물이 아니고 감홍(甘汞)·「키니네」·수면제와같은 정제의 유사독물로 판명되었다. 서울서대문서는 이사건을 살인미수사건으로 수사중이며 英양이 먹은약품과학수사연구소에보내감정을의뢰했다. 英양의입맛사이에서라도 또해낸마액과 범행에서라도 英양의 아버지 英正熙(38)씨는 조선 朴모(38)씨 태전부터 소신 紗店 어린애들에서 동서 생활을하며 아현동에서 朴씨의 생활을 대수치 않아 朴씨가 집앞에 구멍가게를 벌여 놓는데 생활은 몹시가난하여 극도로연명하고있다. 최적을 의하면 본서와 밝히려고있는 英양의 毒物양을 제일위여워 인 英姬양을 제일위여워 했다한다.

본부인 朴씨는 또한약 2개월전 생활이 궁한나머지 「굶겨죽이느니보다 데리고가서 기르라」고 하여 英姬양과 그의언니 眞男(7)양을 남편에 맡겼다가 아현동부인의 구박이심한끝만 아니라 朴씨가 어린애들이 보고 눈물고있어 英양의 누이동생이 다시데리고 왔다고한다. 이때에 본부인과 소실사이에는 어미들 잡아들 의 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한다. 경찰은 과학수사연구소의 약품감정이 끝나는 대로 독살기도여부를 밝힌다.

◇독을먹인 貫姬양

濟州南方에 장마前線

本土侵攻할지 말지

중앙관상대에의하면 제주도지방에는 제주남방 5백「킬로」해상의 장마전선으로 최근 매일같이 비가내리고있다.

중부지방에 있어서도 26일하오3시경부터 계속 알고가생겨 산악지대는 비가 조금씩 내리고있으나 기대할정도는 못된다고 한다.

그리나 제주남방의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으로 이동하면 충분한비가 내릴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예측할수는없다고한다.

모내기 80%

濟州道降雨量 금주한 75밀리

【濟州】24일하오부터 25일아침까지 제주도인데에는 75「밀리」의많은 비가내리 2、3인내로 80%의 모내기가 진행된 것이다.

南原엔 20밀리

【南原】이곳 남원에는 26일하오4시15분경부터 비가내리기시작—이날 밤현재 약20「밀리」의 비가내렸다.

경작면적 전부가 모내기를 마치면 앞으로도 52「밀리」가량의 비가 더내려야한다고한다.

◇제4회서 朴賢植이「3·런·호머」를 때려「홈·인」

朴賢植、오랜만의3런·호머

明治大야구「팀」은 26일 한국원정경기 고별전에서 實業選抜「팀」에게 5대2로 패배하여한숨의 아만을 이루지못했다.

明大는 이「게임」앞서 지행된 제13차전에서 大學選抜「팀」을13대0으로 크게제압하여 내한이래 14전13승 1패의기록을 세웠다.

이로써 明大는 한국원정 14차전을통해 14개의「호프만」을 기록했으며 통산 77점 실점17점이란 우수한 전적을나타냈다.

明治大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0	0	0	3	0	3
0	0	0	0	0	0	0	2	0	2
0	0	0	0	0	0	2	0	0	2
0	0	0	0	0	0	0	0	1	1
0	0	0	0	0	0	0	0	0	0